

# 토종식물로 '향제품' 만든다

## 농기원 생물원, 석창포·쑥 등 44종 시제품 2천억원대 향료시장 수입 대체효과 기대

전남에 자생하는 향토식물을 이용한 '향(香) 제품'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생물농업연구팀은 석창포와 측백, 쑥 등 향토 자원 식물에서 '원료 향'을 추출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상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화백 나무·쑥·월계수 등

원료로 사용된다. 또 석창포에서 추출한 두뇌 활성화 성분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쑥을 활용해 비누, 샴푸 등을 제품화했다. 국내 향료(香料) 시장은 2천억원대 규모로 매년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원료 향'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7년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원추리와 옥잠화를 이용한 향수 '노고단(Nogodan)'을 비롯해 비누·보디 로션 등 8종을 개발한 데 이어 지난 2000년

에는 녹차와 감국(甘菊)으로 향수 '소지(小地)'와 다양한 용도의 향 제품 5종을 개발했다. 이들 제품 개발로 1억6천만원의 직접 판매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지역 야생화 농민들도 연간 40여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농업기술원 식물자원연구과 조경숙 박사는 "전남지역은 자생 향료 식물자원이 300여 종 이상 분포돼 있다"며 "원료 향 및 향료제품 개발 여하에 따라 수조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 나주 천연염색 관광 상품화

## 나주 문화관, 광주디자인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나주 천연염색문화관이 천연염색과 디자인을 접목시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천연염색문화관은 지난 15일 광주디자인센터와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친환경 소재 및 문화상품 R&D, 공동전시, 체험 및 교육세미나 공동 개최 등 다양

한 사업을 벌이게 된다. 이번 협약체결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활용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져 천연염색의 상품화가 본격적으로 오르게 됐다. 나주 천연염색문화관은 그동안 디자인 분야가 취약해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국에서 하루 500여명의 체험 관광객들이 천연염색문화관을 방

문하고 있으나 간단한 옷가지에 천연염색을 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관광 상품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흥기 관장은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상품 및 소재개발 등 천연염색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디자인센터는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을 총괄하는 디자인산업 진흥기관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학협동연구원 등 32개 디자인기업과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강진군-中 용천시 고교생 '상호교류'

**내년부터 방문 추진**  
강진군과 중국 용천시의 고등학교생들이 상호 교류를 하게 된다. 강진군은 최근 자매 결연도시인 중국 용천시와 교육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동안 양 지역 고등학교생들의 상호 방문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먼저 강진 성요셉 여고 학생 20여명이 용천시를 방문해 교육현장을 살피고 문화 마인

드를 넓힐 수 있게 됐다. 인구 29만명의 용천시는 절강성 서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천 청자'와 '용천 보검'으로 알려져 있다. 강진군과 용천시는 지난 2001년 청자 생산지라는 공통분모를 매개로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으며 매년 강진 청자축제와 용천 청자 보검축전에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 화순 대표 브랜드 '山竹 산양삼' 상표등록

**인삼주스 등 13개 상품**  
화순군이 최근 '산죽(山竹) 산양삼' 실용신안권 상표등록을 마쳤다. 이번에 등록된 산양삼은 인삼과 홍삼, 장뇌삼을 비롯해 인삼 분말, 인삼 주스, 장뇌삼 엑기스 등 13개 상품이 다. 군은 동북면 모후산에서 최초로 재배되면서 조선시대 당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았던 고려 인삼(동북삼)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산양삼을 군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인근 해역 오물 등 방지

## 관광객들 눈살 찌푸려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자갈밭 해수욕장에 바다에서 떠밀려온 각종 쓰레기 등이 널려 있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소안면 일대는 천연기념물 제 339호로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구로 상륙수위와 500여m의 해수욕장이 관광명소로 알려지면서 해마다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연초부터 폐교를 리모델링한 11실 규모의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해역에서 조류에 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상자와 오물 등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해상국립공원 지역인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해수욕장에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국립공원 지역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광객 김 모(56·서울)씨는 "경관이 수려한 아름다운 해수욕장에 쓰레기가 흉물스럽게 널려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해남JC 내년 임원진 선출

## 신임 회장에 김경필씨



해남 청년회소(회장 윤상일)는 지난 19일 임시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김경필(35·해남 하임피자·사직)씨, 상임부회장에 김영진(36·이레유통대표)씨, 내무부회장에 외무부회장에 각각 고성동(36·성동전기소방대표)·이준성(36·해남대한유통대표)씨를 선출했다. 또 대재호(32·방골외식산업)·박경철(32·남향레미콘)씨를 감사로 선임하는 등 2008년도 임원진을 구성했다. 김회장은 "신뢰와 믿음이 있는 조직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단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 광산구 '영어 열풍'

## 겨울방학 기간 중 저소득층 자녀 무료교육

## 원어민 강사 초빙 교육... 해외여행 기회도

광산구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광산구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관내 저소득층 고교생을 대상으로 '2007 광산 영어 캠프'를 연다. 내년 1월부터 한 달간 운영되는 영어 캠프에는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영어 성적이 우수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40명이 참여해 호남대학교 원어민 강사 4명으로부터 무료로 교육을 받게 된다. 또 관내 교회 1곳에 민·관 합동으

로 운영되는 영어학습센터를 설치, 내년 1월부터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이곳에서 일정 기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친 뒤 반응이 좋을 경우 영어학습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지난 7월 관내 중학생들이 참가하는 영어 웬버네를 열어 입상자 8명에게 영어권 국가로의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모후산 표지석  
화순군이 지난 17일 고려인삼 시배지이자 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 예정지인 모후산 정상에 표지석을 세웠다. 이날 제막식에는 전원준 군수와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생태테마파크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파고다FS, 담양 '방문요양사업'에 빵 제공

광산구 하남공단에 있는 제빵업체인 파고다FS(구 파고다식품·대표 이상선)가 담양군이 실시하고 있는 방문 요양사업에 무상으로 빵을 제공한다. 담양군은 21일 파고다FS와 방문 요양사업 대체급식 공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파고다FS는 내년 말까지 매주 목요일에 800개의 빵을 무상 공급한다. 군은 지원된 빵을 푸드뱅크 차량을 이용해 읍·면 거점급

식소에 배정, 관내 노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방문요양 사업 지원으로 담양군은 연간 3천1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담양군이 중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방문 요양사업은 경로식당을 통한 급식 1천83명, 도시락 배달 428명 등 1천511명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담양=차재희기자 jhwha@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최고품질의 특어 기술력! 냉매·소음 저감 장치 채택

무등산업

**쓸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000평 공장의 난방비도 0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난방비 1/3로 줄었다!**

TEMPIA 0621 955-4222 080-701-7117